

번역학의 개념도 그리기:
— *Translation Studies Bibliography*와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를 중심으로 — *

이 향
(한국외대)

1. ‘번역’이 아닌 ‘번역학’

번역이 아닌 번역학을 논하자는 주장은 종종 귀찮고 거부하게 들린다. ‘귀찮은’ 이유는 번역학 연구자가 답해야 하는 여타의 긴급한 물음들이 많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통번역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가, 무엇이 더 좋은 번역인가, 인공지능이 곧 인간 통번역사를 대체할 것인가 등등의 구체적 질문에 답하는 것이 추상적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보다는 쓸모 있고 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찌 보면 맞는 얘기다. 언어학과 문학만으로는 번역이라는 복합적 현상을 온전히 설명할 수도 없고,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다는 자각

* 이 연구는 2019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에서 생겨난 학문이 번역학 아니던가. 번역학 연구자가 현장의 문제와 씨름하고, 그에 답하려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번역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거북한’ 질문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번역학의 공간은 다양한 학문 배경을 가진 연구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번역학을 각자 다르게 인식한다. 영문학자가 생각하는 번역학과 동시통역사가 생각하는 번역학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어떤 연구자는 번역학보다는 ‘통(역)번역학’이라는 명칭이 적합하다 생각하고, 누군가에게는 번역학이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는 당연히 문학번역이다. 번역학을 응용언어학의 한 분과로 여기는 연구자도 있고, 일종의 비교문학이라 믿는 연구자도 있다. 번역학의 우산 아래 모여 있는 연구자들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번역을 연구한다. 어쩌면 이것은 문제점이 아닌 경쟁력일 수도 하다. 서로 다른 시각과 접근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다이내믹스야말로 번역학이라는 신생학문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제도적으로 안착하게 만든 동력 중 하나였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번역’만이 아닌 ‘번역학’을 논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20여 년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제도화¹⁾의 길을 걸어온 한국 번역학계는 사실 이 문제를 한 번도 본격적으로 성찰하지 못했다. 번역학이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하던 당시, 1세대 연구자들이 고민했던 번역학의 학문적 정체성이나 과제 문제²⁾는 후속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번역’에 대한 담론에 비해 ‘번역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포괄적 논의는 너무도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학문으로서의 번역학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번역학의 학문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유럽에서 추진되어 온 작업 중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려 한다. 특히 197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

1) 번역학의 제도화 정도는 여러 가지 지표로 가능해 볼 수 있다. 질(Gile)은 (유럽의) 번역학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통번역교육기관, 학술지, 번역학 박사과정, 번역학 전문 출판사 등의 표지(markers)로 설명한다(Gile 2012: 77). 적어도 이러한 표지 상으로는 한국의 번역학이 대체로 제도화의 중요 기준들을 충족시키며 성장해 왔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한국 번역학이 제도화 되는 과정에 대한 기술은 Lee&Nam(2019)을 참고한다.

2) 김지원(2000), 유명우(2000), 김지원(2004) 등을 참고한다.

지 번역학이 제도 학문으로 탄생하고 성장하는데 직, 간접적으로 기여해 온 연구자 그룹 중 ‘루벤 그룹(Leuven Group)’을 중심으로 추진된 두 개의 방대한 프로젝트, 즉 *Translation Studies Bibliography*와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이하 TSB/HTS)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 작업이 번역학에 대한 담론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것이 국내 번역학계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루벤(Leuven)’ 그룹

TSB/HTS 프로젝트의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루벤 그룹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소장학자³⁾들이 70년대 이래 현재까지 수행해 온 작업을 개괄적으로라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벨기에의 작은 도시 ‘루벤’을 이들 그룹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편의에 따른 선택일 뿐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거점을 두고 활동해 온 번역학 연구자들은 소위 저지대 국가(Low countries group) 그룹, 조작학과(Manipulation school), 텔아비브 학파(Tel aviv school) 등 다양한 명칭⁴⁾으로 불려온 기술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그룹과 상당히 겹친다. 그러나 이들이 수행해 온 연구와 작업은 특정 학파, 특정 국가, 특정 도시의 것으로 한정짓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룹을 ‘루벤’으로 칭하는 것은 우리가 소개하려는 TSB/HTS의 추진 주체가 루벤 대학교 산하에 있는 번역학연구소(CETRA: Center for Translatio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Leuven)이며, 이 작업의 공동편집자가 루벤 대학 소속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가 종종 번역학이 70년대 유럽에서 탄생했다고 말할 때의 ‘유럽’은 파

-
- 3) 여기서 ‘유럽의’라는 말은 사실 모호하다. 추후 설명하겠으나 이들의 주요 활동 거점이 유럽, 보다 정확히는 루벤, 암스테르담, 앤트워프 등의 유럽 도시일 뿐, 실제 연구자들의 ‘국적’이 모두 유럽이었던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편의상 ‘유럽의’ 담론이라 언급할 때에도 이러한 복합적 의미를 염두에 두어야 함을 밝혀둔다.
- 4) 이러한 명칭의 유래와 한계, 그리고 DTS가 하나의 학파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허먼스(Hermans 1999: 7-16)를 참조한다.

리도 런던도 아닌 루벤(Leuven), 안트워프(Antwerp), 코펜하겐, 암스테르담 등의 도시이다. 그러나 이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학자들의 국적은 벨기에나 덴마크, 네덜란드에 국한되지 않는다. 랑베르(Lambert), 르페베르(Lefevere), 델라바스티타(Delabastita) 등의 벨기에 학자뿐 아니라,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던 미국인 홈즈(Holmes), 비엔나 대학 소속의 영국인 스넬 혼비(Snell-Hornby),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소속의 번역학자 투리(Toury) 등이 바로 이 공간에서 교류하였다.

알고 보면 번역학을 독립학문으로 성장하게 만든 핵심적 사건의 상당수는 대부분 이들 그룹과 직, 간접적 관계 하에 추진되었다. 번역학의 ‘탄생선언문’이라 할 수 있는 홈즈의 논문이 처음 발표된 것은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응용언어학회였다⁵⁾(Holmes 1988[1972]). 훗날 DTS로 체계화될 자신의 규범(norm)이론(의 초안)을 투리가 최초로 발표한 장소는 1976년 루벤 학술대회였다(Snell-Hornby 2007: 124). 뒤이어 1978년 텔아비브, 1980년 안트워프에서 2년 간격으로 개최된 일련의 학술대회를 통하여 동유럽의 번역연구자 뿐 아니라 홈즈, 이븐 조하르(Even-Zohar), 투리(Toury), 바스넷(Bassnett), 티모츠크(Tymoczko), 허먼스(Hermans) 등이 교류하게 된다(Hermans 1999: 12).

학회를 통한 학자들간의 활발한 교류 외에도 번역학 발달사에서 분기점을 이루는 몇 가지 사건들이 이 공간에서 일어난다. 이 그룹의 핵심멤버인 투리와 랑베르(Lambert)의 주도로 1989년 번역학 전문학술지 *Target*이 창간되고 CETRA가 창설되었다. *Target*의 창간은 뒤이어 90년대에 걸쳐 일련의 번역학 전문저널의 탄생을 예고⁶⁾하는 신호탄이었으며, CETRA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번역학(신진)연구자들이 주기적으로 교류하고 결속하게 만들었다⁷⁾. 오늘날의 걸출한 번역학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CETRA를 경유⁸⁾하였으며, CETRA가 그

5) 정확히는 1972년 8월 개최된 제3차 응용언어학회의 ‘번역분과(translation section)’에 서였다. 홈즈의 논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Snell-Hornby(2006:40-46)를 참조한다.

6)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창간되는 다양한 번역학 전문 학술지에 관해서는 Gile(2012:77)을 참고한다.

7) 이를 ‘번역학 공동체의 결정화(Crystallization of TS community)’라고 칭하기도 한다(Gile 2012: 77).

8) 페르메어(Vermeer), 노이베르트(Neubert), 핼(Pym), 질(Gile), 강비에(Gambier), 베누티

로부터 3년 뒤인 1992년 유럽번역학회의 창설에 크게 기여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Gile 2012: 78).

그런데 학술대회를 조직하고 학술지를 만들고 연구서를 내는 등, 번역학의 제도 학문으로서의 가시도를 높이려는 초창기의 노력에 뒤이어, 2000년대 초부터 추진되어 온 다른 한 축의 작업이 있다. 번역학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대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작업은 번역학이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학문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어 내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는 번역학 안에서 생산된 다양한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인 *Translation Studies Bibliography*(TSB)와 번역학의 핵심이론과 접근, 개념들을 기술하고 정리해 내는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HTS)로 구체화된다.

3. 번역학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다

번역학 안에서 생산된 다양한 연구물을 *Bibliography*나 *Handbook* 혹은 *Encyclopedia*의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은 번역학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뼈아픈 자각에서 비롯된다. 번역학을 특징짓는 다양한 접근과 방대한 스펙트럼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신생학문을 일종의 ‘슈퍼마켓’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⁹⁾ 번역학을 특징짓는 키워드로 종종 언급되는 번역학의 ‘파편화(fragmentation)’ 현상, 다시 말해 번역학이 극도로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고, 그 파편들을 연결해주는 접점은 점차 느슨해지거나 사라지는 번역학계의 현상은 이것이 기우가 아님을 입증한다. 이에 더해 여타 학문과 달리, 학술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은 실무자 출신 연구자(practisearcher)가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번역학의 현실 역시 이 신생학문의 학문적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 넘어서야 하는 약점으로 인식된다(Gile 2015: 241). 이러한 번역학의 태생적 ‘약점’은 다양한 톨과 리소스를 활용

(Venuti), 허먼스(Hermans), 르페베르(Lefevre) 등이 CETRA를 경유하였다.

9) “...much more than ever, the discussion of translation issues tends to develop into endless controversies over the ‘relevant’ points of reference, with the result that TS finds itself in a virtual supermarket of reflections and ideas. (Wilss 1999: 132).

하여 번역학이라는 학문에서 생산해 온 방대한 지식을 구조화하는 작업을 통해 서만이 극복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유럽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Encyclopedias, Bibliographies, Terminologies, Dictionaries, Handbooks 등이 쏟아져 나온다. 이는 스스로를 독립학문으로 선언한 번역학이 그에 걸 맞는 체계와 구조를 갖추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이다. 여기서는 지면의 한계상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대표적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 장에서 기술할 TSB/HTS 프로젝트의 고유한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1998년 출판된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이하 백과사전)』은 번역학 탄생 후 대략 20여 년간 누적된 방대한 지식을 ‘백과사전’ 형식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시도이다. 번역학 전체를 불과 70여개의 키워드, 33개의 국가별 혹은 대륙별 전통으로 담아내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한 『백과사전』은 번역학이 독립학문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재차 선언하는 효과를 거두었다.¹⁰⁾ 대략 10여년이 흐른 후 발행된 이 백과사전의 재판(second edition)¹¹⁾ 서문에서 편집자들은 번역학이 ‘유럽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백과사전의 핵심 동기였음을 밝히고, 최대한 비유럽적 관점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으며, ‘검열(censorship)’,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 ‘해체(deconstruction)’ 등, 초판에 담지 못한 다양한 표제어들이 추가되었다고 설명한다(Baker & Saldana 2009: xxii). 그러나 편집자들 스스로 인정하듯 재판본이 초판본에 비해 유럽 바깥의 시각을 충분히 담아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중심주의’의 모호한 의미는 차치하고서라도, 시시각각 확장되는 번역학의 스펙트럼을 십년 간격으로 출판된 백과사전이 한정된 표제어로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 가능하다.

한편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백과사전』과는 다른 성격의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스페인 알리칸테 대학교 소속 프랑코 엑셀라(Franco Aixelá)의 주도로 추진된 BITRA(Bibliography of Interpreting and Translation)는 스페인 문화교육부의 후원을 받아 2001년도에 런칭된 온라인 번역학 문헌검색 사이트¹²⁾이다.

10)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은 한국번역학회의 주도로 2008년 한국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한국어 번역본의 저본은 초판본이다.

11) 2009년 보완 개정된 재판(second edition)은 2011년 paperback으로 출판되었다.

BITRA는 애초에 7개의 검색 언어로 시작하여 현재 총 7만5천 건의 번역학 관련 연구물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대략 10-12개의 상위 범주¹³⁾, 100여개의 키워드로 번역학 관련 문헌을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새로운 연구물들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의 시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지만, 키워드 선정의 자의성 문제, 스페인어 자료에 편중된 자료 구성 등은 저자 스스로도 한계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Franco Aixelà 2003:153,159).

4. TSB/HTS의 사례 소개

TSB/HTS의 공동편집자인 도어슬러(Doorslaer, 2014)는 번역학 안에 누적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야말로 번역학 이전과 이후 담론을 구분하는 키워드라고 설명한다.

(종종 처방적 성격을 띤) 과거의 번역 성찰과 최근의 번역학 담론을 구분 짓는 중요한 차이점 하나는, **후자가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다는데 있다.** (과거의) 개인적, 개인특유의 이론들이 개인의 관찰이나 내적성찰을 토대로 한 반면, (번역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기존의 이론 틀을 토대로 한 체계적 접근을 요구한다. [...] 결과적으로 기존 지식을 구조화하는 것이야말로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문헌들을 학술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One of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the older (often prescriptive) translation reflection and recent TS discourse is **the systemic structuring of knowledge in the latter**. Where as personal or so-called idiosyncratic

12) BITRA 홈페이지 (http://aplicacionesua.cpd.ua.es/tra_int/usu/buscar.asp)

13) 2003년 당시 대략 10개의 검색 범주(theory, search, documentation, profession, interpreting, problem, genre, history, teaching, machine)로 출발했던 BITRA는 현재 여기에 두 개의 범주(author, work)를 추가하여 총 12개의 범주, 그리고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하위범주들을 포함, 총 100여개의 키워드로 번역학 관련 문헌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theories were/are usually based on personal observation and introspection, a scholarly approach requires a systematic engagement with the existing theoretical work. [...] As a result, the structuring of the existing knowledge is a prerequisite for scholarly dealings with a growing amount of materials (Doorslaer 2014: 22, 강조는 필자).

번역에 대한 소회를 담은 에세이나 개인적 체험담은 번역학 이전에도 있었다. 그런데 번역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난 이후의 담론이 그 이전과 다른 점은 그것이 학문으로서 번역에 대한 기존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정리해 내는데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주장을 뒤집으면, 이러한 ‘체계화’ 작업이 없이는, 번역학이 스스로를 ‘독립학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뜻이 된다. TSB/HTS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두 프로젝트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TSB/HTS 14)는 기획 단계부터 개별 연구자나 특정 대학의 차원을 넘어서서 유럽번역학회(European Society for Translation Studies), 루벤 번역학센터(CETRA), 존 벤야민스 출판사(John Benjamins) 등 세 축의 협업을 통해 기획, 추진되었다. 두 프로젝트 모두 국내에는 단행본¹⁵⁾ 형태로 더 잘 알려져 있으나, 그 기능과 가치는 온라인 버전에서 훨씬 잘 드러난다. 한마디로 BITRA와 『백과사전』을 한 쌍으로 묶되, 온라인상으로 상호 연계시킨 것이다. TSB가 600여 개의 키워드를 통하여 번역학 관련 다양한 문헌을 검색하고 개별 문헌에 대한 서지정보와 개요(abstract)에 접근하게 해주는 틀이라면, HTS는 번역학의 핵심 주제 170여개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제공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역할을 한다. 두 프로젝트는 상호참조(cross-referencing) 기능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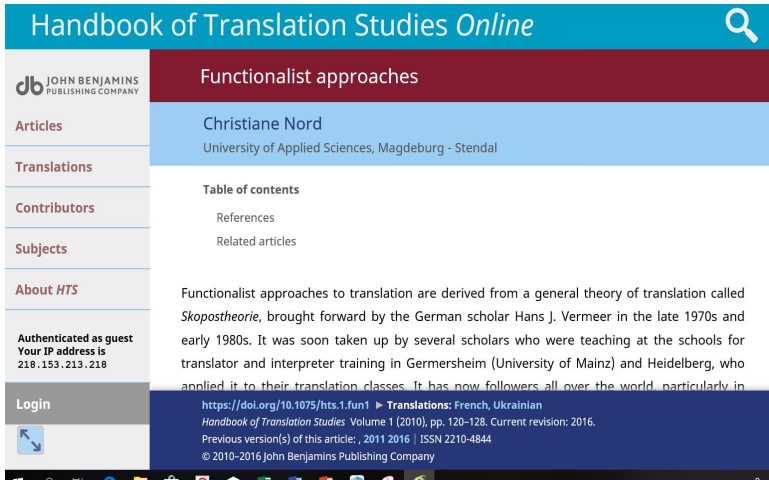
14)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홈페이지 <https://benjamins.com/online/hts/>

Translation Studies Bibliography 홈페이지 <https://benjamins.com/online/tsb/>

15) HTS는 2010년 이래 현재까지 총 4개의 단행본으로 발행되었다. (참고 Gambier & Doorslaer (eds), 2010-2013). 2014년 기준, 135명의 저자가 참여하여 집필한 총 174개의 표제어를 담고 있다. HTS online 에는 표제어가 아랍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 터키, 스페인, 포르투갈어로 번역되어 있다. 번역된 표제어의 수나 종류는 언어별로 편차가 있다. 올해 중으로 한국어 번역도 추가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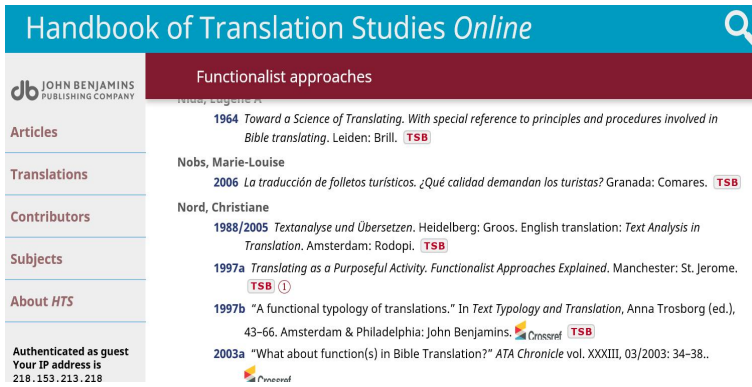
HTS의 검색창에 ‘기능주의(functionalist approaches)’를 입력하면, 기능주의의 대표 저자 노드(Nord)가 작성한 대략 4600단어 분량의 개념설명과 함께 기능주의에 관한 여타 연관 주제어와 참고 문헌이 함께 제시된다(<그림 1>).

<그림 1> Handbook of Translation Online에서 '기능주의'를 검색한 결과



여기서 참고문헌으로 언급된 핵심 문헌에는 아래와 같이 TSB 상호참조 버튼이 표시된다(<그림 2>).

<그림 2> Handbook of Translation Online에서 '기능주의' 관련 TSB 상호참조 표시



TSB 상호참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논문의 간단한 요약과 함께 중요 서지 사항을 볼 수 있다(<그림 3>).

<그림 3> TSB에서 제시한 Nord(1997a)의 서지사항

The screenshot shows the 'TRANSLATION STUDIES BIBLIOGRAPHY' websit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Introduction, People & Network, Subscription & Price, Trial, Submit data, Contact, and JB Onlin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Preview' and contains the following information:

This is a preview. Subscribers can click here to view the full article.

Publication details

Authors/Editors:	Nord, Christiane
Title:	<i>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i>
Year:	1997
Publisher:	Manchester: St. Jerome
Series:	Translation Theories Explored 1
Pages:	160 pp
ISBN:	1-900650-02-3
Publication type:	Monograph
Language:	English

분명 기존의 Bibliography나 Handbook의 약점을 보완하여 핵심적 개념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필요한 문헌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프로젝트의 규모나 기능 측면만은 아니다. 사실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와 아카데미아(Academia)의 시대에 TSB/HTS가 검색 툴로서 가지는 경쟁력이나 가치는 상당히 퇴색하였다.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이 두 프로젝트의 기저에 있는 개념도(conceptual map)이다.

5. 번역학을 어떻게 구획할 것인가: ‘개념도’의 문제

‘개념도(conceptual map)’라는 말이 일견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사실 번역학은 개념도에서 출발한 학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홈즈의 1972년 발표문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투리가 완성해 낸 홈즈/투리의 지도(Holmes/Toury Map) 역시 일종의 개념도가 아니던가(1972/1995).¹⁶⁾ ‘지도’라는 것이 제작자가 세계를 어

16) 홈즈의 ‘지도’를 기준으로 한국의 번역학 연구물을 분류하고 홈즈의 지도가 가진 한

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홈즈/투리의 번역학 지도 역시 저자들이 번역학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가령 홈즈는 번역학을 크게 순수번역학과 응용번역학으로 나누었으며, 훗날 핼이 비판한 것처럼 ‘번역의 역사’는 이 지도 위에 없었다(Pym 1998: 2). 핼(Pym)이 지도가 기본적으로 권력의 도구(*instrument of power*)라 말한 것은, 번역학 개념도를 그리는 작업이 ‘지도를 그리는 자’의 편파적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Pym 1998: 2-3). 앞서 언급한 백과사전이나 BITRA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문이든 그 학문 조망하는 ‘개념도’ 없이 해당 학문이 축적한 지식을 정리해 낼 수는 없다. 번역학의 경우, 무엇을 번역학의 주요 개념으로 ‘선별’할 것이며, 무엇을 핵심적 문헌으로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는 번역학 내부의 지식을 체계화하는 작업에 가담하는 연구자 누구나 수행해야 하는 결단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을 ‘하나의 틀’로 담은 것이 ‘개념도’인 것이다.

TSB는 처음부터 ‘개념도 작업’에 특별히 공을 들였다(Doorslaer 2007: 218-219).

에초부터 TSB 프로젝트의 편집진(자비에 프랑코, 이브 강비에, 다니엘 질, 조세 랑베르, 기든 투리, 뤽 반 도어슬러)은 키워드 중심 서지 체계에 내재하는 개념 구조의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낼 수 있는 원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키워드를 하나의 개념도 안에 그려 넣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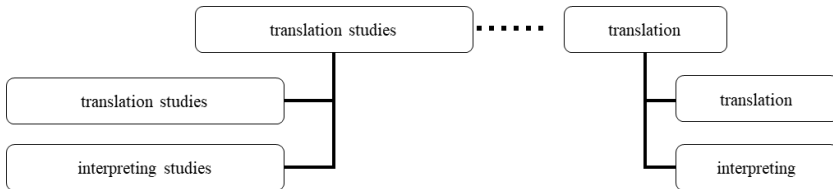
From the very beginning, the Editorial Board of the TSB project (consisting in those first years of Javier Franco, Yves Gambier, Daniel Gile, Jose Lambert, Gideon Toury and Luc van Doorslaer) explicitly aimed at establishing a structuring principle in the inherent conceptual complexity of the keywords system of the bibliography. It was decided to integrate (most of) the keywords into a conceptual map. (Doorslaer 2007: 219)

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Lee(2015)를 참고한다.

저자는 모든 지도 그리기 작업이 가지는 위험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열려 있고 기술적인(open and descriptive)’ 개념도를 그려내는 작업이 가치 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열려 있는(open)’ 개념도라는 것은 새로운 용어나 개념이 언제든 추가되어 기존 개념을 대체하거나,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 지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술적인(descriptive)’ 개념도라는 것은 현재 학계의 동향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개념도라는 의미이다. TSB를 통해 확보된 문헌들에 대한 분석¹⁷⁾이 키워드 선정의 근거가 되므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현재의 번역학의 모습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열린 개념도를 지향한다는 것이다(Doorslaer 2007: 220). 이 지점이야말로 TSB/HTS의 지도가 홉즈의 그것과 구분되는 대목이다. 홉즈가 그린 지도가 그 자신이 (미래의) 번역학에 거는 기대를 담은 일종의 ‘가상지도’였다면, TSB와 HTS의 개념도는 오늘날의 번역학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Doorslaer 2014: 24).

개념도의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4>는 TSB에서 ‘번역’과 ‘번역학’의 관계를 표시한 개념도이다.

<그림 4> TSB의 기본 지도, Doorslaer 2007: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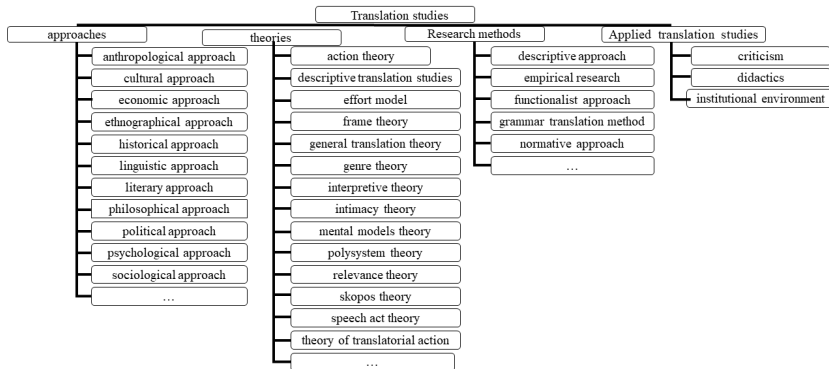
<그림 4>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번역학(translation studies)’과 ‘번역(translation)’의 위치, 그리고 두 사이를 연결하는 점선이다. ‘번역’은 ‘번역학’ 아래에 들어 있지 않고 ‘번역학’과 나란히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는 문

17) TSB를 비롯한 다양한 Bibliography들은 번역학계의 연구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흥미로운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다. 번역학 내에서 이러한 과학계량학(scientometrics) 혹은 계량서지학(bibliometrics)을 활용한 연구는 Zhang et al(2015), Doorslaer & Gambier (2015), Rovira-Esteva et al(2015), Zanettin et al(2015), Gile(2015) 등을 참고한다.

헌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통역이나 번역행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논의들과 번역학에 대한 메타적 접근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둘 사이의 접선은 번역에 대한 논의와 번역학에 대한 논의 사이의 상보적이면서도 특수한 관계를 표시한다고 설명한다(Doorslaer 2007: 222). 또한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이 통역학(Interpreting Studies)과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을 아우르는 ‘상위개념’으로 선택되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맨 위 왼쪽의 Translation studies는 ‘통(역)번역학’인 것이다.

뒤이어 <그림 5>는 저자들이 번역학 안의 다양한 접근, 이론, 연구방법 등을 어떤 방식으로 분류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그림 5> Map of Translation Studies, Doorslaer 2007: 230



위의 분류가 적절하지 여부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림 5>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선 접근(approaches), 이론(theories), 연구방법(research methods)을 구분하는 기준을 논의해야 했을 것이다. 또한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와 descriptive approach처럼 경우에 따라 theory로도 research methods로도 중복 분류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 필요했을 것이다. 여하튼 <그림 5>는 현재 번역학을 구성하는 다양한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각각의 접근, 이론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은 이 개념도 안에서 좌표를 부여받는다. 물론 그 좌표값은 잠정적인 것이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 수정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열린’ 개념도는 19세기 지도처럼 ‘많은 부분이 여백으로 남겨져 있는’ 불완전한 지도이기 때문이다(Nuyts and Verschuerer 1987: 16, Doorslaer 2007:222에서 재인용).

6. 국내 번역학계가 생각해 볼 문제들

이상에서 우리는 루벤 그룹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진행되어 온 TSB/HTS 프로젝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 프로젝트의 기저에 있는 개념도를 검토해 보았다. 언어문화적 환경이 우리와 명백히 다른 유럽의 번역학 담론은 애초부터 우리와 다른 지향점, 다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따라서 TSB/HTS,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개념도’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면, 혹은 그것이 일종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의 작업이, 다음 단계를 모색하는 국내 번역학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가령 우리는 앞서 소개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번역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학문명의 문제이다. 사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분류표 상에 공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문명은 ‘통역번역학’이지만, 학계에서는 ‘번역학’이나 ‘통번역학’이라는 명칭이 더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이 밖에도 ‘번역연구’, ‘번역론’이라는 명칭도 종종 함께 사용되며, 이는 위키백과 검색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위키백과에 ‘번역학’을 검색하면 ‘번역연구’, ‘번안’ 등의 연관 주제로 연결되고, 그 중 번역연구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제시된다.

“번역 연구(翻譯研究)는 번역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과학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를 다루는 인문과학의 한 분야이다. 번역론(翻譯論)이나 번역학(翻譯學)이라고도 불린다. 비교 문학 연구와 컴퓨터 과학, 역사학, 언어학, 철학, 기호학, 커뮤니케이션학, 인지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 학제적인 분야이다. (위키백과) (강조는 필자)

번역학계 외부에서 ‘번역연구’라는 명칭이 종종 선택되는 이유는 아마도 번역학의 영문명에 들어 있는 ‘studies’ 때문일 것이다.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여성연구(woman studies) 역시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문화학, 여성학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언어별로 ‘translation’이라는 말이 다른 넓이를 가진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명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한국어의 ‘번역’은 문서의 번역만을 지칭하는가 혹은 영어의 translation처럼 경우에 따라 통번역을 아우르는가, TSB/HTS에서 제안한 대로 번역학은 통번역학과 번

역학을 동시에 합의하는가, 등등 여러 층위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번역학의 핵심적 개념의 ‘정리’(혹은 번역) 문제이다. 번역학에서 개념정의의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¹⁸⁾되어 왔으며, 이는 학제적 성격이 두드러진 번역학의 특성상 불가피한 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학의 주요 개념들에 대한 정리 작업은 번역학 전공자나 신진 연구자들을 위해서 뿐 아니라 인접학문의 번역 연구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국문학, 사학 등에서 수행되는 번역연구들은 종종 번역학의 주요 개념들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유사한 개념에 대한 번역학 문헌들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인용하지 않는다.¹⁹⁾

셋째, 국내 번역학의 하위분야를 어떻게 구획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학술연구분야 분류표상에 번역학은 인문학의 하위분야로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그림 6>).

<그림 6> 한국연구재단 학술분야 분류표(2016년 2월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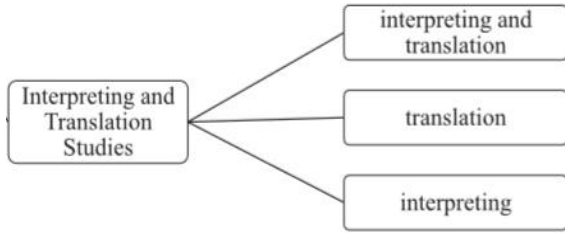
A210200	인문학	기타서양어문학	폴란드어문학	Po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210300	인문학	기타서양어문학	루마니아어문학	Romanian Language and Literature
A210400	인문학	기타서양어문학	체코어문학	Czech Language and Literature
A210500	인문학	기타서양어문학	슈고어문학	Yugoslavian Language and Literature
A210600	인문학	기타서양어문학	헝가리어문학	Hungarian Language and Literature
A219900	인문학	기타서양어문학	기타서양어문학	Other Western Languages and Literature
A220000	인문학	통역번역학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A220100	인문학	통역번역학	통역번역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220200	인문학	통역번역학	통역	Interpretation
A220300	인문학	통역번역학	번역	Translation
A990000	인문학	기타인문학		Other Humanities
B000000	사회과학			Social Science
B010000	사회과학	사회과학일반		Social Science in general
B010100	사회과학	사회과학일반	사회과학교육	Social Science Education
B010200	사회과학	사회과학일반	사회과학정보	Social Science Information
B010300	사회과학	사회과학일반	사회과학사	History of Social Science
B019900	사회과학	사회과학일반	기타사회과학일반	Other Social Science in general

18) Snell-Hornby(2007)는 투리의 규범(norm) 개념이 독일 기능주의에서의 ‘norm’ 개념과 어떻게 다르며, 이러한 개념 차이가 이후의 이론 담론에 어떤 혼란을 초래했는지를 상세히 기술한 바 있다.

19) 가령 한국의 번역 및 변안소설을 연구한 『번역과 변안의 시대』에서 저자가 사용하는 ‘기능주의’ 개념은 번역학에서의 기능주의 개념과 다르다. 저자는 1910년대의 신문연재소설이 최초로 원전을 완역했다는 점에서 ‘반-기능주의로 정의하며, 이밖에도 원문을 대폭 줄이거나 변화시킬 경우 이를 ‘기능주의적’이라고 설명한다. 번역학에서의 ‘기능주의적 접근’ 혹은 스크포스 이론에서의 ‘기능’이라는 것이 번역물의 용도, 목적, 독자 등과 보다 밀착된 의미로 쓰이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통역번역학’이라는 상위범주 하에 통역번역, 통역, 번역이 세부 분야로 표시되어 있다. 영문명을 기준으로 개념도로 그려보면 대략 <그림 7>과 같은 모습이 된다.

<그림 7> 한국연구재단 학술분야 분류표에 따른 기본 개념도



<그림 7>에는 TSB/HTS의 기본지도(<그림 4>)에서 언급된 ‘translation studies’가 없다. 다시 말해 통번역, 번역, 통역에 대한 직접적 연구와 별도로 번역학에 대한 메타적 연구의 영역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국내의 번역학은 통역이나 번역에 대한 개별적 연구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이 신생학문이 생겨나기 이전의 번역담론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7. 결론

20년 전만해도 국내에 번역학이란 학문은 제도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번역학이 하나의 학문 분과로 존재한다고 해서, 20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번역학은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어느 사회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학문이 아니다. 출판시장에서 번역서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혹은 어떤 국가가 사회문화적 여건상 번역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해서, ‘번역학’이라는 별도의 학문공간이 반드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번역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었고, 여전히 번역을 중요한 인문학적 실천으로 여기는 일본만 해도,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번역학의 기반²⁰⁾을 가지고도, 큰 문제없

20) 일본의 경우 리쿄 대학에 2002년에 번역 석사과정 개설되었으며 뒤이어 고베 대학

이 흥미로운 연구들을 생산해 왔다. 번역학의 존재가 자명한 것이 아니라면, 제도 학문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성장해 온 한국의 번역학에게 주어진 다음 과제는 무엇인가. 본고는 이 막중한 질문에 부분적으로 답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질문의 크기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답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온전한 학문은 해당 학문에 대한 ‘메타적’ 성찰을 요구한다. 번역학이 번역이나 통역에 대한 연구물의 단순 총합에 그칠 수는 없다. 그것을 넘어서야 번역학은 비로소 ‘연구’나 ‘론’이 아닌 ‘학문’일 수 있다.

번역학의 제도적 안착과 별개로, 독립학문으로서의 번역학은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 번역학이 축적해온 작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열린’ 개념도를 그려가는 작업이야말로 번역학의 명칭, 학문적 위상, 향후 발전 방향 등의 논의에 ‘학문적으로’ 답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본고에서 소개한 TSB/HTS의 사례가 그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지원 (2000) 「번역 연구의 발전과 번역학의 현황」, 『번역학 연구』 1(1): 9-31.
 김지원 (2004) 「번역학의 어제와 오늘」, 『번역학 연구』 5(1): 55-75.
 박진영 (2011) 『번역과 변안의 시대』, 서울: 소명출판.
 유명우 (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 연구』 1(1): 229-248.
 Baker, Mona & Saldana, Gabriela (eds) (1998, 2011)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Routledge.
 Doorslaer, Luc van & Gambier, Yves (2015) ‘Measuring Relationships in Translation Studies. On affiliations and keyword frequencies in the

교에 개설되었다. 일본에서 번역과 관련하여 몇 편의 박사논문이 발표되었으나 모두 인접학문에서 수행된 것이고 별도의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에 개설된 번역학 박사과정의 수는 대략 8개에 이른다(Lee&Nam 2019: 425). 일본에서 번역학이 생겨나고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Takeda(2012:11-32)와 Wakabayashi(2012:33-52)를 참조한다.

- Translation Studies Bibliography,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23(2): 305-319.
- Doorslaer, Luc van (2005) 'The Indicative Power of a Key Word System: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Key Words in the Translation Studies Bibliography', *Meta* 50(4). (attached CD-rom).
- Doorslaer, Luc van (2007) 'Risking Conceptual Maps: Mapping as a Keywords-Related Tool Underlying the Online Translation Studies Bibliography', *Target* 19(2): 217-233.
- Doorslaer, Luc van (2014) 'Knowledge Structuring In Translation Studies', *Innovative Infotechnology for Science, Business and Education* 1(16): 22-25.
- Franco Aixelà, Javier (2003). 'BITRA; An International On-line Bibliography of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Babel* 49(2): 149-163.
- Gambier, Yves & Doorslaer, Luc van (eds) (2010-2013)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4 volume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ile, Daniel (2012) 'Institutionalization of Translation Studies', in Yves Gambier & Luc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ume 3*,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73-80.
- Gile, Daniel (2015) 'Analyzing Translation Studies with Scientometric Data: from CIRIN to Citation Analysis',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23(2): 240-248.
- Hermans, Theo (1999) *Translation in Systems*, Manchester: Saint Jerome.
- Holmes, James S. (1988 [1972])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Translated! Papers on Literary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 Lee, Hyang (2015) 'Mapping Translation Studies in Korea: Using the Holmes Map of Translation Studies', *Forum* 13(1) 65-86.
- Lee, Hyang & Nam, Won Jun (2019) 'The Past and Fu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South Korea',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27(3): 419-430.
- Pym, Anthony (1998)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Manchester: St. Jerome.

- Rovira-Esteva, Sara, Orero Pilar & Aixelá (2015) 'Bibliometric and Biliographical Research in Translation Studies',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23(2): 159-160.
- Snell-Hornby (1988)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nell-Hornby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nell-Hornby (2007) *The Metalanguage of Transl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Takeda, Kayoko (2012) 'The Emergence of Translation Studies as a Discipline in Japan, in Nana Sato-Rossberg & Judy Wakabayashi, Judy (eds)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in the Japanese Context*, London: Bloomsbury, 11-32.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Wakabayashi, Judy (2012) 'Situating Translation Studies in Japan within a Broader Context in ana Sato-Rossberg & Judy Wakabayashi, Judy (eds)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in the Japanese Context*, London: Bloomsbury, 33-52.
- Wilss, Wolfram (2004) 'Translation Studies: The State of the Art', *Meta* 19(4): 777-785.
- Zanettin, Federico, Saldanha Gabriela & Harding, Sue-Ann 'Sketching lanscapes in translatin studies: A Bibliographic Study,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23(2): 161-182.

<웹사이트>

-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홈페이지 <https://benjamins.com/online/hts/>
- Translation Studies Bibliography 홈페이지 <https://benjamins.com/online/tsb/>
- BITRA 홈페이지 http://aplicacionesua.cpd.ua.es/tra_int/usu/buscar.asp

[Abstract]

A conceptual map of Translation Studies

Lee, Hya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ranslation Studies (TS) in South Korea has been successfully institutionalized over the last two decades. But its status as an independent discipline is often questioned, which calls for translation scholars to reflect on the next steps that should be taken for TS to become a full-fledged discipline. This study tries to address this issue by examining how European translation scholars have systematically structured sources and material accumulated in TS to effectively spread knowledge about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Among numerous initiatives to create dictionaries, encyclopedias, and bibliographies, this paper focuses on two interrelated projects, namely *Translation Studies Bibliography* (TSB) and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HTS). It also discusses the conceptual map with which each of the two projects organizes different approaches, fields, ideas, and theories. Finally, the paper puts forward suggestions to apply these initiatives to Korean contexts and, in particular, stresses the importance of the “meta-approach for driving the discipline’s growth in South Korea.

▶ Keywords: Translation Studies, Translation Studies Bibliography,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Conceptual map, History of Translation Studies

▶ 주제어: 번역학, 번역학 서지, 번역학 편람, 번역학 개념도, 번역학의 역사

이향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학과 교수

leehyangmarina@gmail.com

관심분야: 번역학의 역사, 번역윤리, 번역학의 제도화

논문투고일: 2019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2019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 2019년 5월 28일